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관련변인분석

The Analysis of Eco-friendly Values and Related Variables of the Elderly

조 명 희

서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

Cho, Myoung-Hee

Dept. of Living Welfare,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co-friendly values of the elderly.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survey the eco-friendly levels of the elderly, 2) to find out related variables of the eco-friendly values of the elderly 3) to suggest to develop the eco-friendly values of the elderly for volunteer activity of environmental problem solutions. Two hundred eight elderly persons in the region of Cheong-ju(Chung-cheong Buk Do) were selected, and questionnaire was utilized for collecting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co-friendly levels of the elderly were relatively high and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health status, religion, participating volunteer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the eco-friendly values of the elderly were educational level, health status, religion, participating volunteer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voluntarism of the elderly provides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 and life satisfaction, self development for the elderly.

Key words : the elderly, eco-friendly values, volunteer activity

I. 서 론

노인인구가 한 국가사회의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의 국가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21%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ultra-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3년 현재 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7%에서 14%에 이르는데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1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정도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가 14%에서 20%에 이르는데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41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2년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는 7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통계청, 2001).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다양한 노인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이 되면 지나온 생을 뒤돌아보고 회상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래 사용한 물건에 대해 애착심이 증가하며 자기가 죽을 때 무언가를 남기려는 경향이 나타난다(윤진, 1985).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화 과정에서의 소외와 고립의 증가, 수입의 감소, 이에 따른 의존성의 증가, 사기의 저하 등의 사회적 손실이 훨씬 크게 된다(최성재·장인협, 2002). 이와 같이 사회적 손실이 증가된 노인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재취업,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 것이다. Havighurst와 그의 동료(1953)의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많은 사회활동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자신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노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시각에서부터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자라는 인식의 전

Corresponding author : Cho, Myoung Hee
Tel : 043) 299-8761 Fax : 043) 299-8760
E-mail : kcmhee@seowon.ac.kr

환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 자신이 보다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재취업,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심리적인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조명희, 1998).

특히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원봉사 실태를 보면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사보조, 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의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사회의 복지관, 근린공원 및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인수, 2001). 이러한 봉사활동 중 환경정화 특히 환경문제와 같이 기성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인류의 생존 문제에 관해서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기여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활동은 노년기를 의미있고 창조적인 시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전지구적인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환경위기를 각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조차도 환경문제 해결의 실천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그동안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해온 무분별한 자원채취와 개발행위의 소산으로서 그 심각성이 지구 생태계의 자정능력 상실이라는 총체적 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미래의 인류 생존과 번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그 동안 인류가 영위해온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반성을 낳게 되었다. 그동안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이 사후 처방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경문제를 유발해온 그릇된 발전관과 자연착취적이고 자연정복적인 자연관을 변화시켜 환경조화적인 지속적인 발전관과 공존공생적인 자연관으로 바꿈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실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김대희, 1997). 이러한 환경친화적 가치관은 가정, 학교, 사회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교육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이러한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여가시간이 매우 많다. 또 여가활동의 방법과 기술이 제

한되어 있어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주로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조명희, 1998). 유기학(1995)은 환경문제에 대해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60대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인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가치 수준을 높여 환경문제 해결의 지도자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이 되는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대한 노인들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여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을 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특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젊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도로 약화되었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 직업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던 많은 사회적 역할도 잃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제도가 핵가족제로 변화해 감에 따라 가족 내에서 지켜왔던 노인들의 가부장적 역할도 점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 상실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도 크게 저하되었다. 노인들은 자아의 지지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한 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나라 은퇴 노인들 중 많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남기민 외, 2003).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인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건강보호문제, 역할상실 및 여가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 등이 될 것이다. 특히 역할 상실 및 여가문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노인문제가 될 것이다. 상실된 역할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취업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여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락 및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노인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자기 계발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인들의 욕구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의 노인들은 건강이나 안전, 안락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서 보다 고차원적이고도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한정란, 2001). 노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재적응 문제로 노인의 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최성재 외, 2002). 지금까지의 생활이나 사고 및 행동양식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노인을 신체적·사회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불이익집단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점차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노인을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지닌 존재이자 지속적인 발달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로 보려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노인을 노화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고 생존해 나가야 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귀중한 자원으로 보게 되었다(남기민 외, 2003).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노인들이 지닌 장애보다는 그들이 계발해야 할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노인의 욕구는 ①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 ②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③ 후세대에 문화를 전수시키고자 하는 욕구, ④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욕구, ⑤ 사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 ⑥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⑦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진순, 1991). 노인의 욕구는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 충족은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육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노인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기조성이 필요하다. 여가활동 중에서도 사회적 활용도가 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험학습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자원봉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자기 회복의 과정이며 지속적인 자기성장의 과정인데(Knowles, 1982), 적극적인 형태의 노인여가활동으로 인식되는 자원봉사활동은 크게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가사보조, 의료 및 재활서비스, 사회적 보호)와 둘째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노인입소시설이나 복지관에서의 봉사, 근린공원 및 환경정화, 농촌살리기 및 국산품애용 캠페인, 문화예술, 보건 및 의료, 범죄예방 및 법률문제, 교통 및 안전관리, 정치 및 사회활동)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인수, 2001). 이러한 자

원봉사활동 중 환경정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해결에 노인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환경문제

환경친화적 가치관(eco-friendly values)이란 경제발전과 성장,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기존의 가치관보다는 자연과 환경을 우위에 두는 가치관과 의식을 의미한다(김대회, 1997). 또한 환경친화적 가치관은 환경의식 또는 생태주의 가치라는 용어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환경의식은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동기를 말하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태도·관심·의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행동과 일치될 수도 있으며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이상협, 2003) 생태주의 가치관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이연호·박미석, 1997).

환경문제는 개발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안정성이 파괴되고 생물 종다양성의 감소와 오염물질의 증가 등에 의하여 생태계의 내성범위가 축소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바로 인류의 생존위기와도 결부된다. 환경문제의 근원은 인간중심주의 가치관에 의거해서 발전을 추구해 왔던 것에 기인한다. 총체적 환경 위기라는 요즈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의 강구, 인구증가의 관리 및 식량증산, 자원 및 에너지 그리고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남용 억제와 자연의 자정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 환경친화적 경제 발전과 도시화, 정치·사회 및 국제 관계상의 협조와 분배정의의 실현, 그리고 환경관의 변화를 통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형성 등 다각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해결책들이 무리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과 인간 개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변화 및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의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김대회, 199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등장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 와서 경제개발 활동으로 유발되는 환경오염이 지구생태계의 순환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환경위기를 불러와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등 오히려 인간의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오염이 끼치는 영향력은 점차 이전의 자연적

제약보다 강하고, 새롭고, 복잡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최근에 특히 경제발전에 의한 가치 창출정도와 환경오염이 가져온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의 결과, 잃어버린 쾌적한 자연조건과 환경오염 해소에 필요한 투자비용등 가치상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영국, 1996). 지금까지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주로 한 경제개발 활동을 조속히 바꾸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생산 활동 등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방향은 환경친화적 발전에 의해 가능하며 환경을 이용할 때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때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오홍석, 1993).

3. 선행연구고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정은영(1992)에 의하면 환경오염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점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을 연구 분석한 유기학(1995)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환경보전을 위한 행태는 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대희(1997)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농업인, 공무원, 회사원, 대학생들이 비교적 환경친화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환경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Van Liere 와 Dunlap(1980)에 의하면 나이, 교육수준 등의 변인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된다. Hamilton(1985)은 나이가 어리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오염 위험지각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정은영(1992)은 환경오염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점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여학생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실천하는 경향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한다. 유기학(1995)에 의하면 청주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연령별 관심도는 매우 관심 많다에 20대 41.1%, 30대 54.6%, 40대 58.8%, 50대 50.0%, 60대 80.0%로 60대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적 가치관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김두식, 1995; 김대희, 1997),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다(김대희, 1997). 반면 김두식(1995)과 양종희(1995)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남녀간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 최명원(2002)의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인식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지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환경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환경친화적 가치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과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은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통하여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 수준을 파악하여 노인의 인력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조사이며 조사 대상은 충청북도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 다니시는 노인들, 노인정의 노인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 주로 가정에 계신 노인 등, 표집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표집설계 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청주지역 노인 220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그중 부실 기재된 12부를 제외한 208부가 최종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에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분포 및 백분율, t검증,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최도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질문지는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성별, 학력, 경제상태, 건강 상태, 거주지역, 종교,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대학 수강유무, 여가활동참여, 생활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친화적 가치관의 측정 척도는 김대회(1996)가 Gigliotti(1994)의 측정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한 10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척도의 전체적인 신뢰도(Cronbach α)는 .64이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의 대도시가 13.9%, 대도시 이외지역이 86.1%로 대부분의 노인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이는 청주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건강상태는 보통 52.4%, 나쁨 30.8%, 좋음 16.8%로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노인도 많았다. 경제 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60.1%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08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79(38.0)	종교	유	132(63.5)
	여	129(62.0)		무	76(36.5)
학력	초졸이하	115(55.3)	건강 상태	나쁨	64(30.8)
	중졸이상	93(44.7)		보통	109(52.4)
연령	60-69세	110(52.9)	경제 상태	좋음	35(16.8)
	70-79세	88(42.3)		어려움	61(29.3)
	80세이상	10(4.8)		보통	125(60.1)
거주 지역	대도시	29(13.9)		부유함	22(10.6)
	대도시이외	179(86.1)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 38.0%, 여자 62.0%이며, 학력은 초졸이하 55.3%, 중졸이상 44.7 %로 조사대상노인의 학력이 일반적인 노인의 수준보다 높은 편이었다. 연령은 60-69세 52.9%, 70-79세 42.3%, 80세 이상 4.8%로 60대가 가장 많았다.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역은 광역시 이상

2) 조사대상자의 노년기 생활 특성

조사대상자의 노년기 생활 특성은 <표 2>와 같다.

노인대학 수강경험은 있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은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78.4%로 하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여가활동 참여 실태는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가정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가정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보다 많았다. 조사대상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만족 17.8%, 보통 62.0%, 불만족 20.2%로 대다수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지만 불만족인 노인이 만족하는 노인보다 많았다.

표 2. 노년기생활특성

N = 208

변 인	구 분	빈 도(%)	변 인	구 분	빈 도(%)
노인대학 수강경험	유	111(53.4)	여가활동참여	가정적 활동	124(59.6)
	무	97(46.6)		사회적 활동	84(40.4)
자원봉사활동	하고있다	45(21.6)	생활만족도	불만족	42(20.2)
	하고있지않다	163(78.4)		보통	129(62.0)
				만족	37(17.8)

표 3.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의 전반적 경향

내 용	평 균	SD
과학기술은 이로움보다 피해가 많다	2.24	1.04
환경자원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다	3.83	.55
현 경제·사회체제로는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3.48	.78
과학기술의 발달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57	.78
인간이 자연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4.22	.78
자라는 세대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만큼 자연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3.96	.85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4.35	.59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로움보다는 피해를 더 낳는다.	2.97	1.10
환경친화적인 생활에서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4.24	.78
신기술개발은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4.02	.50
계	36.87	3.30

2.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1)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3>과 같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점수는 10~50점 중 평균이 36.87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환경친화적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회(1997)의 대학생, 농업인, 공무원과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환경친화적 가치점수 41.34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별로 볼 때 특히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만 한다 4.35, 환경친화적인 생활에서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4.24, 인간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4.22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과학 기술이 이로움보다 피해가 많다 2.24,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로움보다는 피해를 더 낳는다 2.97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인간중심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과학기술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지구생태계 전체가 환경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인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조사대상 노인들은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은 <표 4>와 같다. 성별로 볼 때 남자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은 37.14로 여자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수준 평균 36.7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남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60-69세

37.07, 70-79세 36.56, 80세 이상 37.30으로 80세 이상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상이 37.51로 초졸 이하 36.3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부유함 37.27, 보통 37.01, 어려움 36.43으로 부유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보통 37.87, 좋음 36.69, 나쁨 35.25의 순서로 가치관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는 유 37.39, 무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변인	집단	평균	DMR	F/t값
성별	남	37.14		.935
	여	36.70		
연령	60-69세	37.07		.685
	70-79세	36.56		
	80세이상	37.30		
학력	초졸이하	36.35		-2.546*
	중졸이상	37.51		
경제상태	어려움	36.43		.822
	보통	37.01		
	부유함	37.27		
건강상태	나쁨	35.25	c	14.418***
	보통	37.87	a	
	좋음	36.69	b	
종교	유	37.39		3.058**
	무	35.96		

*p<.05 **p<.01 ***p<.001

35.96으로 종교가 있는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수준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중졸이상의 노인,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노인, 종교가 있는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졸이하의 노인이 중졸이상의 노인보다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Van Liere & Dunlap(1980)과 Hamilton(198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3) 노년기 생활 변인에 따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노년기 생활 변인에 따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은 <표 5>와 같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38.27,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36.48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대학수강경험이 있는 노인이 36.93, 수강 경험이 없는 노인이 36.81로 노인대학수강경험이 있는 노인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가활동에 따라서는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여가활동참여 노인이 37.23, 가정적 여가활동 참여 노인이 36.62로 사회적 여가활동참여 노인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생활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 37.89, 보통 37.13, 불만족 35.14로 보통이상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원봉사활동을 현재하고 있는 노인, 생활만족도가 보통이상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8.27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환경문제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환경 파수꾼으로서 노인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표 5. 노년기 생활 변인에 따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변인	집단	평균	DMR	F/t값
자원봉사활동	하고있다	38.27		3.290***
	하고있지않다	36.48		
노인대학수강 경험	유	36.93		.254
	무	36.81		
여가활동	가정적	36.62		-1.299
	사회적	37.23		
생활만족도	불만족	35.14	b	8.491***
	보통	37.13	a	
	만족	37.89	a	

***p<.001

표 6. 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성 별	연 령	학 령	경제상태	건강상태	종 교	자원봉사 활동	노인대학 수 강	여가활동	생 활 만족도
성별	1.000									
연령	-.050	1.000								
학력	-.412***	-.136*	1.000							
경제상태	-.194**	-.114	.376***	1.000						
건강상태	-.425***	-.032	.443***	.337***	1.000					
종교	-.126	.230**	.000	-.410***	-.065	1.000				
자원봉사 활동	.262***	.049	-.349***	-.260***	-.229***	.180**	1.000			
노인대학 수강	.275***	-.121	-.337***	-.396***	-.349***	.151*	.234***	1.000		
여가활동	-.446***	-.060	.324***	.158*	.271***	-.095	-.234***	-.396***	1.000	
생활만족도	-.079	-.067	.145*	.493***	.281***	-.457***	-.267***	-.355***	.128	1.000

*p<.05 **p<.01 ***p<.001

3.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종교, 자원봉사활동, 노인대학수강,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표 7).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에는 학력($p<.05$), 건강상태($p<.05$), 종교($p<.05$), 자원봉사활동($p<.01$), 노인대학수강($p<.05$)과 생활만족도($p<.01$)가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8.8%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종교가 있고, 자원봉사활동과 노인대학수강을 하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이 높았다.

표 7.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수	b	β
사회인구학적변인		
성별	-.316	-.047
연령	-.687	-.123
학력	1.156	.174*
경제상태	-.902	-.165
건강상태	.834	.171*
종교	1.206	.176*
노년기생활변인		
자원봉사활동	1.624	.246**
노인대학수강	1.144	.143*
여가활동	.376	.056
생활만족도	1.372	.256**
상수		35.248
$R^2 = .188$		F값 4.58***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결론

노인들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파악하여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과 의미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관련 변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은 평균이 36.87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환경친화적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환경친화적 가치관은 학력, 건강상태, 종교, 자원봉사활동, 생활만족도 등의 관련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학력이 높은 노인, 건강상태가 보통 이상인 노인, 종교가 있는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 생활변인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현재하고 있는 노인, 생활만족도가 보통이상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환경문제에 의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환경 파수꾼으로서 노인의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종교가 있고, 자원봉사활동과 노인대학수강을 하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환경친화적 가치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노인들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향을 보이며,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여, 즉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환경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이 되는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형성된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가진 노인 인력을 활용해 위기에 처한 지구상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파악하는데 환경문제 해결태도 등 보다 여러 측면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족도, 여가활동, 노인에 대한 태도 등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

는 환경문제와 같이 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 노인들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노인의 인력을 활용하고 노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노인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노인, 환경친화적 가치관, 자원봉사활동

참 고 문 헌

- 김대희(1997).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따른 환경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두식(1995). 환경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조사연구. 한국사회학, 29(봄호).
- 남기민 · 조명희 · 조추용 · 한규량(2003). 노인교육개론. 현학사.
- 오홍석(1993). 환경인식과 실천의 새 지평. 교학연구사.
- 유기학(1995). 환경보전에 관한 청주시민 의식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상협(2003). 환경친화적 가정자원관리행동과 환경의식, 환경지식, 환경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91-102.
- 이연호 · 박미석(1997).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행동에 관한 인과적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43-459.
- 이인수(2001). 한국 노인자원봉사의 의미와 실태. 노인복지연구, 12, 25-45.
- 정은영(1992). 환경오염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평가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1998). 충북지역노인의 여가생활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7(1), 53-60.
- 최명원(2002).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인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 · 장인협(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영국(1996). 환경의식, 환경교육 그리고 전통문화의 창조. 자연보존, 95.
- 최진순(1991). 노인의 사회교육 요구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한정란(2001). 교육노년학. 학지사.
- Doughty, R.(1981). Environmental Theolog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5(2), 234-248.
- Hamilton, L. C.(1985). Who Cares about Water Pollution? Opinion in a Small-Town Crisis. *Sociological Inquiry*, 55.
- Havighurst, R. J. & Albrecht, R.(1953). *Older People*. Longmans, Green & Co.
- Gigliotti, M.(1994). Environmental Educ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2(1), 9-12.
- Knowles, S.(1982). Motivation in Voluntarism. *Voluntary Action News*, 31, 3.
- Van Liere, K. D. & Dunlap, R. E.(1980).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 A Review of Hypotheses, Explan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4.

(2004. 12. 18 접수; 2004. 02. 09 채택)